

광주 産災증가율 19.5% 전국 최고

올들어 1277명 ... 금형·부품업체서 많이 발생 일용직·고령화에 보호구 미지급 등 안전불감

올들어 광주지역 산업 재해자 수가 크게 늘었다. 지난해 보다 산재가 19.5% 증가,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자동차·가전 호환으로 금형·부품 제조업체의 재해자 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광주지방노동청에 따르면 올들어 1~5월까지 광주지역 근로자 산업재해자 수는 127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069명보다 19.5%(208명) 증가했다. 특히 5월 한달동안에만 254명이 급증, 상승폭을 키웠다. 경기·인천 15.1%, 대전 7.7%, 대구·경북 6.3%, 서울과 강원 5.4%, 부산·경남 0.7%의 증가율보다 월등히 높다.

업종별로 보면 서비스업이 453명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 404명, 건설업 287명으로 이들 3개 업종에서 발생한 산재가 90%나 됐다. 형태별로는 넘어짐 사고가 346명(27.1%), 기계·가구에 끼임 사고 255명(20%), 높은 작업 장소에서 떨어진 사고 184

명(14.4%)이었다. 이같은 산재 급증은 기아차와 삼성광주전자의 판매 호조로 금형·부품산업이 활기를 띠면서 이들 협력업체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가전의 호환이 협력업체 가동률을 높였고, 협력업체들은 고질적인 인력난에 따라 일용직

노동자까지 작업현장에 투입하면서 사고가 많이 늘었다는 것이다. 영세 제조업 종사자들의 고령화와 김·미역 가공 등 계절적 요인도 산재율을 높이는 데 한몫했다.

건설업에서는 수완지구 등 신도시 개발지역에서 근린생활시설과 빌딩 신축 공사가 지난해보다 70%가량 늘어난다면서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이들 공사는 대부분 소규모로 시공업체가 영세해 안전시설을 갖추지 않거나 보호구·안전모 등을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가 많았다.

음식·숙박업 등 서비스업에서는

배달 중 오토바이·차량 사고가 49건으로 가장 많았고, 주방에서 칼에 배임, 파절기·반죽기에 끼임 사고도 빈발했다.

이에 따라 광주지방노동청은 사고성 재해감소 100일 대책을 마련해 사업장 1210곳을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또 기아차·삼성광주전자 등 대기업 안전담당 임원과 함께 협력업체를 방문, 안전수칙 준수 등 재해 예방 노력을 당부하는 등 산재 감소에 전력을 바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건설업계 ‘시련의 계절’

불황·공정위 조사·구조조정 ‘삼중고’

구조조정의 뒷수리를 맞게 된 국내 건설업계가 부동산 시장 침체에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일제 실태조사까지 받게 되면서 ‘3중고’의 시련을 맞고 있다.

특히 공정위의 건설업 일제 실태조사 5년만에 재개되는 것으로 국내 200개 대형업체가 대상인데다 실태조사 뒤 부당행위 혐의가 드러나 업체는 곧바로 공정위의 직권조사를 받을 예정이어서 큰 파장이 예상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28일 “지난 5월부

터 제조·영업업종 6만9800개, 건설업종 3만2000개 등 모두 10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 거래 일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면서 “조사대상 가운데는 5년만에 처음으로 ‘시공능력 평가 순위 200위’에 속하는 대형건설사가 모두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공정위가 이례적으로 5년만에 대형 건설업체 200곳을 선별해 실태조사를 벌이는 것은 최근들어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현금성 결재비율이 떨어지거나 법정기일을 초과해 하도급 대금

을 지급하고 있다는 등의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공정위가 집계한 국내 기업의 현금성 결재비율은 지난 2000년 44.2%에 머물러 2005년에는 80.3%로 크게 올랐다. 이후 2006년 84.1%, 2007년 88.5%로 증가세를 보이다 2008년 처음으로 90%대로 올라 95.3%를 기록했으나 2009년 들어 93.2%로 되레 낮아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기침체와 구조조정 회오리 등을 맞고 있는 건설업계의 어려움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최저임금’ 주장 팽팽

2011년 최저임금안 제출시한을 하루 앞둔 28일 서울 논현동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제7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급 4140원을, 노동계는 5000원을 주장, 팽팽히 맞서고 있다. /연합뉴스

‘C등급’ 미주제강·성원파이프

“워크아웃 검토 안해”

미주제강과 그 계열사인 성원파이프는 28일 조희승씨 요구에 대한 답변을 통해 “주채권은행으로부터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결과 ‘부실징후 기업’에 해당하며 경영정상화 가능성

이 있는 기업(C등급)으로 분류됐음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주채권은행과 협의해 등급 관정의 정확도 향상을 위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면서 “현재는 워크아웃을 검토

토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미주제강은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으로부터, 성원파이프는 농협중앙회로부터 C등급을 받았다.

미주제강은 “현재 부채비율이 114%로 동종업계의 평균을 밑돌고 있고, 상반기 영업실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크게 개선되고 있다”면서 “예상치 못했던 기업개선작업 대상기업으로 선정돼 당혹스럽지만 주채권은행의 결정을 존중해 조속한 시일 안에 경영정상화를 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삼성광주전자 ‘지펠’ ‘대한민국명품’ 선정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삼성광주전자에서 만드는 ‘지펠 마시모 주걱 냉장고’(사진)가 대한민국 명품으로 뽑혔다.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은 28일 수도권 거주자 1만2668명을 대상으로 명품지수를 조사한 결과, 삼성전자 지펠 마시모 주걱 냉장고와 애플 아이폰 등 34개 상품을 ‘대한민국 명품’으로 선정했다.



엔타 글라스, 제일모직의 남성정장 겔럭시, 샤넬, 에르메스, 아모레퍼시픽 선풍기 등이 선정됐다. ‘주목받는 신상품’에는 다음커뮤니케이션의 로드뷰, 하나은행의 휴대 전화, 에플사의 아이폰, 청호나이스 이파수 열음정수기, 캐논 EOS 디지털카메라 등이 명품지수 1위로 집계됐다. /박정욱기자 jwpark@

자동차·주거 부문에 선 벤츠 S클래스와 힐스테이트, 시몬스 침대 등이 명품으로 뽑혔고, 패션·생활 부문에선 락

미국 최대 시장조사업체 JD파워

기아차 광주공장 품질 우수상



기아자동차 광주2공장이 미국 최대 시장조사업체인 JD파워의 생산공장 품질평가에서 동상을 받았다. 한국 자동차업체가 JD파워의 품질우수 공장상을 수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JD파워는 28일 기아차 광주공장 대강당에서 테리 커틀리 상무와 기아차 광주공장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시상식을 열고 기아차에 상패를 전달했다. (사진) 품질평가 대상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미국에서 판매된 차량을 대상으로 품질만족도를 조사해 해당 차량이 생산된 공장의 품질 문제점을 수치화한 것으로, 아시아지역 40개 공장 중 기아차 광주2공장이 렉서스를 생산하는 일본 도요타의 규슈2공장, 타하라

3공장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1992년 준공된 광주2공장엔 총 33만㎡ 규모의 부지에 200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연간 20만대의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다. 100% 용접 자동화 차체라인과 자동화 로봇을 확대 적용한 도장라인, 자동차·품질실버를 새 로 갖춘 의장라인 등을 구축해 스포티지R과 쏘울을 혼류 생산하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

국세청·금융기관 ‘모범납세자 금융우대 협약’

국세청은 28일 신한은행, 우리은행과 모범납세자(기업)에 대해 대출금리를 2년간 최대 0.3% 포인트 깎아주는 것을 골자로 한 ‘모범납세자 금융우대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모범납세자에게 금융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은 중소기업

은행·농협중앙회·부산은행·제주은행·경남은행·대구은행·전북은행·광주은행 등 모두 10곳으로 늘어났다.

국세청에 따르면 신한·우리은행은 국세청장 표창 이상(훈장, 포장, 대통령 표창)을 제공하는 중소기업

국세청장 표창)을 수상한 모범납세자에게 산출된 대출금리에서 신용등급에 따라 2년간 0.3% 포인트 이내의 우대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 지난해 이 제도를 도입한 농협중앙회는 7월 1일부터는 금융우대를 받는 모범납세자 대상을 지방국세청장 표창 이상자로 확대하고 대출금리 우대혜택 인정기간도 포상일로부터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국세청은 전했다. /연합뉴스

기아차 5억주 황당 주문

발행주식 보다 많아 ‘헤프닝’

기아차에 발행주식보다 많은 매수 주문이 몰리는 헤프닝이 발생했다.

28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오전 10시2분께 기아차 주가 3만2450원에 약 4억 9000만주의 매수 주문이 들어왔다. 기아차의 발행주식은 약 3억9000만주다. 증권업계는 일단 외국계가 주문을 실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10여

분만에 모든 주문 물량이 사라졌다.

당시 주가가 3만2500~3만2550원 범위에서 움직이면서 대부분 체결되지 않았지만 매수 호가 수준으로 주가가 떨어지면서 일부는 체결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씨티그룹이 31만주로 매수 상위 창구를 올라와 있다.

증권사 관계자는 “외국계창구를 통해 주문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매수·매도 체결 규모로 볼 때 대부분 물량은 취소됐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코스피지수	1,732.03 (+2.19)
코스닥지수	498.75 (+0.63)
금리 (국고채 3년)	3.95% (+0.05)
원·달러 환율	1,202.00원 (-13.40)

*수치는 전일 증가 기준

토지매매

위치 : 나주시 노안면 오정리

- 대지 : 4,000평
- 건물 : 650평
- 전 : 9,500평
- 합계 : 13,500평
- 매가 : 40억 5000만원

▷ 광주 ~ 무안 고속도로 (나주.C 입구)

▷ 동신대 ~ 나주.C-국가산업단지 (4차선도로확장 확정)

길잡이공인중개사

• 상표등록 : 41-0163369호 •

☎ 011-620-3960 ☎ 062-381-6000 (상무지구 5.18공원사거리)

금당 공인중개사

T.222-4994, 010-2632-5659, 011-782-6266 (동구 금남로 5가 우리은행 4거리 1층)

■ 감정가 이하

- 병원건물, 상무지구 중심지, 대지 1010㎡ (305평) 건물 2996㎡ (906평) 공시지가 27억 3천 400만 410원
- 동구 6차선도로와 3차선 도로 코너 대지 1948㎡ (589평) 건물 2109㎡ (637평) 공시지가 27억 3천 400만 250원
- 신안동 상업지 310㎡ (94) 공시지가 3억 2천 244원
- 마곡동 자연녹지, 대지 574㎡ 공시지가 5억 2천 593원
- 대지, 우암동 소방도로점 275㎡ (83평) 1억 5천 5백 원
- 충장로5가 5층 건물 대지 333㎡ 건물 156㎡ 공시지가 3억 2천 593원
- 요양시설허용 환경권 월야면 토지 11139㎡ (3370평) 건물 1442㎡ 점막건물 189㎡ 매도 6억 원
- 금남로 중앙고교 뒤 주택 200㎡ 전용 100㎡ 공시지가 매도 8400만원
- 북동 6차선 도로 대지 55㎡ 건물 206㎡ 6층 건물 5억 원
- 화정동 6차선 도로 대지 135㎡ 건물 173㎡ 매도 8억 5천 원
- 목포시 대지 413㎡ 3층 건물 공시지가 5억 2천 244원
- 금남로3가 대지 100㎡ 건물 311㎡ 공시지가 8억 5천 244원
- 충장로1가 대지 63㎡ 건물 229㎡ 공시지가 12억 2천 440원
- 3층과 4층은 공실이고, 전세 1억 2천 440원 매도 16억 5천 원
- 금남로5가 대지 대지 89㎡ 건물 319㎡ 공시지가 12억 2천 440원
- 4층과 5층은 공실이고, 전세 1억 2천 440원 매도 16억 원
- 중앙동 공구상가 22평 분양가 1억 8천 440원 매도 6천 원

■ 매도·교환

- 4층 상가주택 신안동 4차선 도로변 대지 184㎡ (56평) 건물 461㎡ (136평) 매도 1억 2천 440원
- 전원주택서 송산유원지 부근 196평 사할도 적합 8800만원
- 나대지 흑석 사거리 일곽동 주공 아파트 입구 준주거지 472㎡ (143평) 공시지가 4억 3천 440원 매도 5억 2천 440원
- 광산구 우산동 상업지역 187㎡ 공시지가 6억 7천 244원 매도 6억 2천 440원
- 요양시설, 병원, 사육 직할 유동 4거리 대지 240㎡ 건물 818㎡ 매도 18억 440원 공시지가 14억 2천 440원
- 나대지 260평 쌍촌동 대우아파트입구 평당 205만원
- 북구 충효동 대지 147㎡ 전원주택 적합 7900만원
- 담양읍 부인모래리가지지 1527㎡ 분양가능 11억 5천 원
- 생산녹지 서구 덕흥동 1802㎡ 공시지가 6억 3천 440원 매도 9억 9천 440원
- 자연녹지 706평 대원동 서광동 부근 매도 9억 9천 440원
- 화순군 능주면 소재지 주택 대지 100평 수리해아원. 1900만원
- 화순군 관천면 권리지역 동 임야 13,862평 평당 2400원 1억 8천

광천동 e-편한세상

선착순 특별분양(할인 프리미엄 적용)

<총 1096세대>
30% 에너지 절감형 친환경 저에너지 아파트

111㎡ (구, 33평) 로얄층 / 164㎡ (구, 49평) 로얄층
191㎡ (구, 58평) 로얄층 다수 보유

142㎡ (구, 43평) 로얄층 / 로얄층

- ▶ 112동 1002호
- ▶ 112동 1102호
- ▶ 112동 1201호
- ▶ 112동 1202호
- ▶ 112동 1302호
- ▶ 112동 1402호
- ▶ 113동 1004호
- ▶ 113동 1204호
- ▶ 113동 1404호
- ▶ 114동 1101호
- ▶ 114동 1301호
- ▶ 114동 1401호
- ▶ 123동 402호

■ 주변 소풍터온 / 교통요충지 / 재개발 예정지로서 투자까지 상승 기대

입주민들의 찬사를 받고있는 대단지 명품아파트임.

상담문의 062) 368-0789 H.P 010-2587-8552

효성공인중개사

011-602-4207 ☎ 521-6024 (FAX) 521-6026

공장매매

하남공단 4차선 9번로변

- 대지 4,959㎡ (1,500평)
- 건물 2,176㎡ (658평)
- 호이스트 5t, 10t (총고 9m)
- 매매가 22억 5천만 원

평동공단내 2번도로점

- 대지 3305㎡ (1050평)
- 건물 1983㎡
- 공장총고높이 : 6m~8m
- 호이스트 없음 (설치가능)
- 전기 : 300kw
- 매매가 : 13억원

전자조립, 물류창고 기타제조업 적합

금산공인중개사

T.881-5888 H.011-801-5354 (서평주권 건너 순환도로변)

상무신도심 상업·용·지 (C1지역) 매매

■ 위치

- 상무병원, 롯데마트 건너편, 삼성화재빌딩 옆 (4면 광로변)

■ 대지면적

- 약 2,850㎡ (180평 분양가능)
- 33.3㎡ 매매가 - 1,300만원

■ 공동 복합 APT 주택가능 (최근 도시계획 변경) ※ 종합병원/상가/오피스 유출가능

■ 장점

- ① 주상복합(공동 APT) 가능
- ② 광로변 최고 광고 효과
- ③ 롯데마트, 상무병원 건너 삼성화재 옆 최고의 상권
- ④ 최고의 교통 접근성
- ⑤ 상무신도심 중심 상업, 문화지구

※ 10층 신축건물 옆 코너

부동산 담보대출

- 아파트 후순위 대출 (시세의 90%)
- 임대아파트 특별대출 (임대금액의 80%)
- 주택·논밭·임대나대지 추가 대출

최저금리

분할 상환 가능

금융(부동산 투자) 고소득 안내

- 사안확정고정액(회차지우대) 이상 초빙

안전한 금융투자 (부동산 담보) 사업안내

- 1억투자→월이자 150만원~250만원
- 2억투자→월이자 300만원~350만원
- 1천투자→월이자 25만원
- 3천투자→월이자 70만원

• 법무사, 업무대행 철저권리분석

등록번호 서구 제 482호 금리연 24~49%

한국금융투자개발 ☎ 374-2760